

2010. 5. 20.(목)

수출입은행, 올해 1분기 중 해외직접투자 현황 발표

- 제조업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세

- 한국수출입은행(www.koreaexim.go.kr, 은행장 김동수) 해외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**2010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총액**은 전년 수준이나, 제조업과 아시아 지역 투자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.
- 해외경제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“2010년 1/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”에 따르면, 1분기 투자액은 33억 달러(실행기준)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로는 1.8% 감소했으나, 신고기준으로는 76.0%가 증가하였다.

*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통계는 실행기준임

- 이는 지난 분기 투자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과 대형 투자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며, 월별로는 3월 중에 전년동기대비 31.4% 증가세를 나타내 상승세를 기록했다.
-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**20.6%** 증가한 **11억달러**로 최대 투자비중을 차지한 가운데, 2009년도 최대 투자업종인 광업은 **10.2%** 감소한 7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.
-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중동 앞 투자가 각각 **20.7%, 94.1%** 증가했으며, 작년 투자 증가세를 보였던 북미와 유럽 투자는 각각 **10.0%, 30.2%** 감소했다.
- 대기업 투자는 12.6% 감소에 그친 반면, 중소기업 투자는 31.9% 감소하였으며, 1억불 이상의 투자비중이 32.1%에서 20.4%로 감소하는 등 투자규모의 대형화가 악화되었다.

- 한편,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며 공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'08년 8.8%에서 '09년 23.1%, '10년 1/4분기 21.5%로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접투자에서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.
- 해외경제연구소는 최근 유로존 경제위기 발발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으나, 2010년 해외직접투자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투자 분위기 호전으로 점진적 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.
-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 비중이 '09년 2.3%로서, 그 규모면에서 선진국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나, 기업 내 수출 확대를 통한 수출기여효과는 약 32%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.
- 한편, UNCTAD는 최근 발표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는 세계 경제성장 및 기업 이윤과의 상관관계가 높으며, 최근 경기 회복 징후를 감안할 때 2010년 투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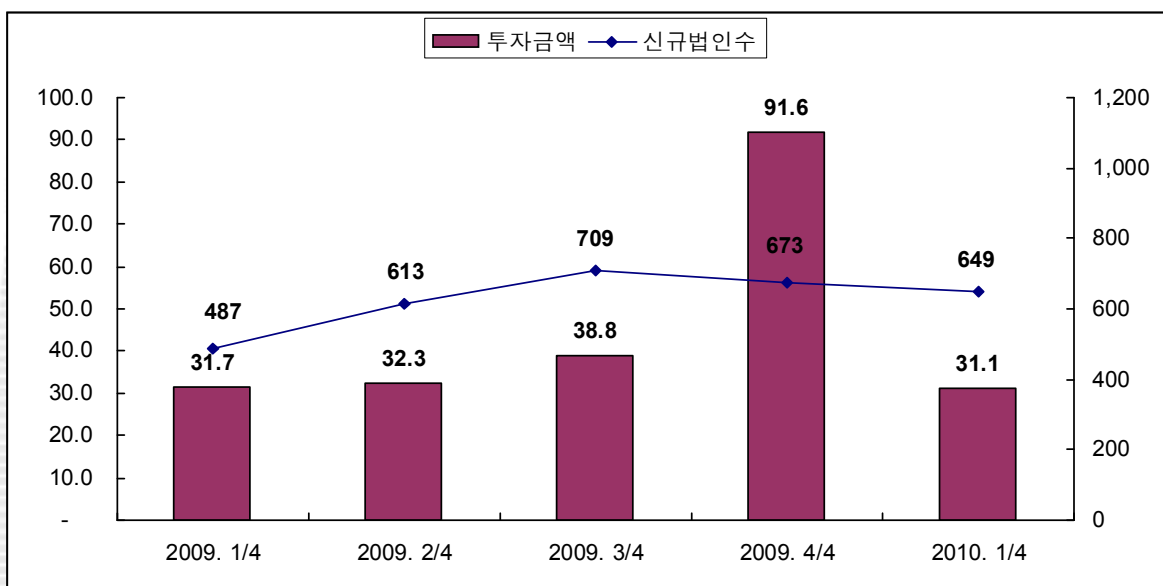
붙임: 2010년 1/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

문	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분석반 김유신 (☎02-3779-6812)		
의	홍보실	공보팀장	신유근 (☎02-3779-6065)

<붙임>

2010. 1/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

- **1/4 분기 중 해외직접투자(실행기준)는 31.1억 달러**
 - 전년동기 대비 1.8% 감소, 전분기 대비 66.0% 감소하였으나, 3월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31.4% 증가세를 보임
 - 분기 중 신규법인 건수는 64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3.3% 증가
- **1/4 분기 중 신고금액은 69.7억 달러**
 - 전년동기 대비 76.0% 증가, 전분기 대비 59.0% 감소
- 지역별로는 대북미, 유럽, 아프리카 투자는 감소한 반면, 대아시아, 중동 투자는 증가
- 업종별로는 광업, 도소매업의 업종에서 투자가 감소한 반면, 제조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
- 향후 해외투자는 전반적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따른 투자 분위기 호전으로, 점차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, 최근 유로존 경제위기가 변수로 등장



금분기 특징 및 주요 투자사업

- 전년 동기 대비 북미, 유럽, 아프리카 투자는 감소한 반면 아시아, 중동 투자는 증가
 - 업종별로는 광업, 도소매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전년동기 대비 투자금액이 감소하였으나, 제조업과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의 업종은 증가
 -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감소한 데 반해, 중소기업 및 개인 투자는 증가
- 금분기 주요투자 업종은 제조업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각각 5.6억불, 2.9억불 투자

※ 금분기 주요 투자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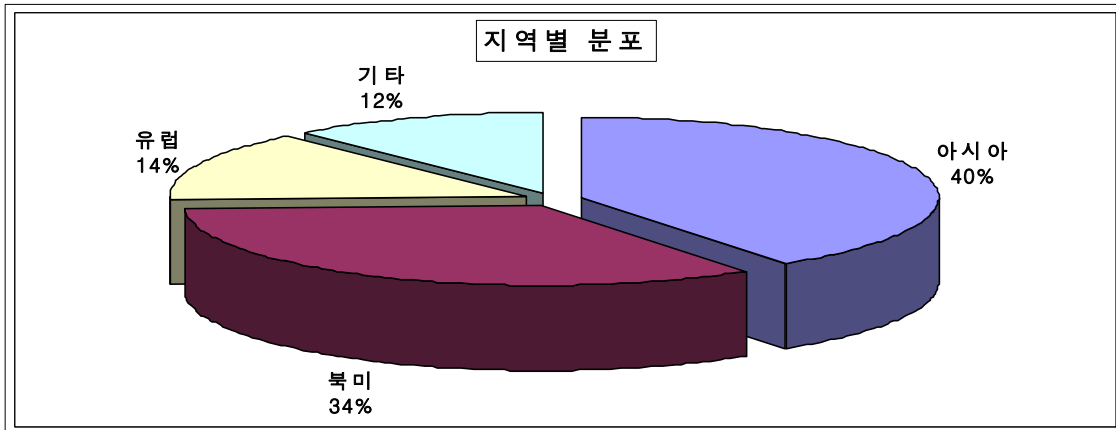
- C사의 캐나다 광업 투자: 436백만달러
- D사의 미국 반도체 관련 라이선스 투자: 200백만 달러
- E사의 네덜란드 유럽지주법인 투자: 73백만 달러
- F사의 캐나다 광구 지분 취득 투자: 68백만 달러
- G사의 괌 부동산개발 투자: 52백만 달러

지역별 동향

- 지역별로는 대북미, 유럽, 아프리카 투자는 감소한 반면 아시아, 중동 투자는 증가
 - 아시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20.7% 증가
 - 중동은 광업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94.1% 증가
 - 반면, 북미는 도소매업, 건설업,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10% 감소, 유럽도 광업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30.2% 감소를 보였으며, 아프리카 역시 도소매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64% 감소

※ 2010. 1/4 분기 투자상위 5개국(억 달러)

: 미국(5.5), 중국(5.3), 캐나다(5.2), 네덜란드(1.5), 베트남(1.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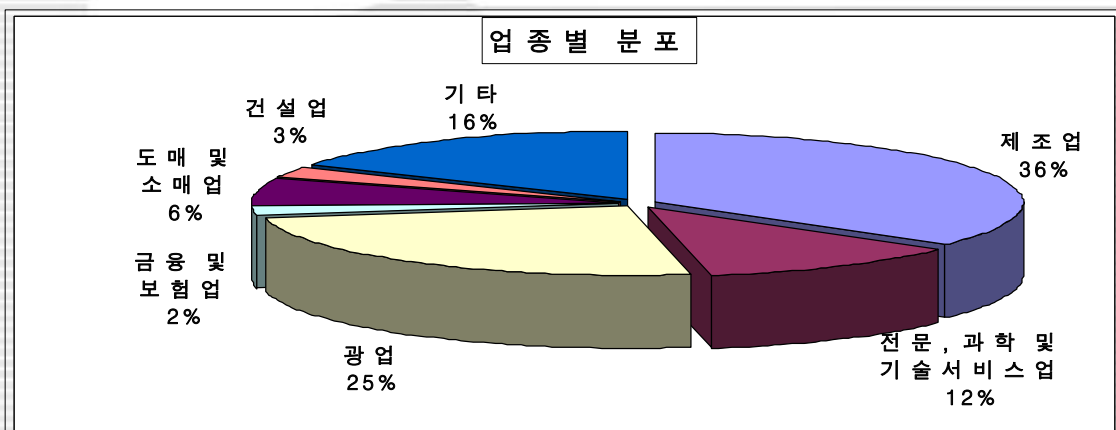


업종별 동향

○ 업종별로는 제조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으나, 광업, 도소매업, 운수업에서는 투자가 감소

· 도소매업 및 운수업은 북미와 중동에서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각각 65.1%, 61.6% 감소하였고, 광업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0.2% 감소

· 제조업은 중남미에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20.6% 증가



기 타

- 대기업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**12.6%** 감소한 반면,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은 **31.9%** 증가
 - 대기업 투자비중 69.5%, 중소기업의 투자비중 27.0%
- **M&A** 형 해외투자는 **4.9억 달러**로 전년동기대비 **60.1%** 감소

향후 전망

- 금년 해외직접투자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투자 분위기 호전으로 점진적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, 최근 유로존 경기위기 발발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해 이의 향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
- 최근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기업 내 수출의 확대를 통한 수출기여 효과가 약 **32%**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어, 그 기능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요구됨